

정부기관 소식

농림수산식품부
소식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대책

발표

지난 5월 22일 여·야의 초당적 협조로 국회를 통과한 「농산물품질관

리법」 개정법률이 6월 13일에 공포되었음.

한우는 한우대로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 대로 판매되도록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에게는 판로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까지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였음.

I. 추진경과

- ▶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2008. 5. 22)
- ▶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2008. 5. 28)
 - 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2008. 5. 28 ~ 6. 17)
 - 2008.7.1 국무회의 심의·의결(7월초 시행예정)

II. 주요내용

- ▶ **【종전】** 300㎡이상 일반음식점 : 구이용 쇠고기
- ▶ **【현행】**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쇠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쌀밥류를 대상으로 6.22부터 시행
 -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12월 22일부터 시행

- ▶ **【개정】** 모든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

III. 대상업소 및 시행시기

- ▶ 구분 : 2008년 7월초, 2008년 12월 22일부터 대상
- ▶ 품목 및 업소
 -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 → 모든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쌀밥류) → 100㎡이상(집단급식소 제외)
 - 돼지고기, 닭고기 식육을 사용한 음식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배추김치 → 100㎡이상(집단급식소 제외)

검역원 소식



검역원, 동물실험 윤리제도 조기 정착에 힘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

법에 따라 농생 명·대학·의료 등 동물실험을 하는 연구기관들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운영토록 6~7월 중에 집중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우선 6월 27일까지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동물실험분야 전문컨설팅 사업자를 선정, 2008년 6~11월(6개월) 기간동안 전국 400개소 중 250개소의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동물실험과 윤리위 설치·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 ▶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이 동물실험기관을 직접 찾아가 현장 상담을 통해 기술적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준다.

또한, 전국의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 중 이미 75개소는 윤리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설치하지 않은 나머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11월말까지 계속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이 계도기관이 지난 후에는 미설치기관에 대한 행정조치(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방침이다.

또 오늘, 검역원은 동물실험 사이버 교육교재 CD(“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그것이 알고 싶다”)를 개발하여 전국의 동물실험운영기관·단체·지자체 등 500개소에 보내주었다.

- ▶ 이 사이버 교육을 통해 동물실험 실시자와 윤리위원의 전문성을 높여 동물실험을 윤리적 및 과학적으로 조화시켜

연구의 품질향상과 생명윤리를 실천해 생명의 존엄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검역원은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희망자(교육계획 총 500명)를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아 동물실험 윤리교육도 11월까지 세 차례 나누어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 교육은 지난 2월 1차 교육에 이어, 이번 2차 첫 교육은 오는 7월 8일(화) 검역원 대강당에서 실시하며,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6월 25일부터 검역원에 신청하면 접수 순위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검역원 관계자는 말하였다.

농촌진흥청
소식



신이 내린 곤충 ‘동애등에’ 이용, 보급형 친환경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 유용곤충과는 지난 해 환경정화곤충 ‘동애등에’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일평균 10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친환경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를 개발하여 특허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처리장치는 현장실증을 위해 현재 시험 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 및 개발을 거쳐 오는 8월부터는 실용화될 예정이다. 동애등에는 유기성 폐기물을 먹이로 하여 정화하는 환경정화곤충으로 이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농진청은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분해 능력이 우수한 동애등에 2종을 선발해 이를 대량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처리장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농진청은 처리장치 개발을 그린테크(주)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Pilot Plant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하루 10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장치가 8월말 상용화 될 예정이다. 동애등에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는 가정, 소규모 식당에서 사용하는 처리능력 3~10kg인 소형장치와 대규모 단체급식소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처리능력 100kg 이상의 대형장치가 개발되었다.

한편,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 되는 곳은 가정(69%)이고 다음으로 음식점, 집단급식소, 농수산시장 순이다. 가정과 음식점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양은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88%를 차지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코자 농촌진흥청은 동애등에 대량생산 기술에 이어, 분해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미생물 3종을 선발하였으며, 친환경 대량처리장치를 연구, 개발하여 최근 실용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농촌진흥청 최영철 유용곤충과장은 “동애등에를 이용한 대용량 친환경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개발로 Pilot Plant시설 단지가 조성되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오염문제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곤충을 이용한 산업은 시간적, 공간적, 인력적 투자가 적고 친환경적이기에 산업적인 큰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